



英 BBC “역대 최 선수 중에 손흥민 수준 없어”

“맨유 박지성 있었지만 손흥민처럼 ‘올해의 선수상’ 근접한 적 없어”

영국 BBC가 손흥민(토트넘)을 집중 조명하며 “역대 아시아 선수 중 최고”라고 극찬했다. BBC는 16일(한국시간) “뉴스라운드” 코너에서 최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의 2018~2019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결승골을 넣는 등 4경기 연속 골로 필멸 날고 있는 손흥민을 집중 조명했다. “해리 케인과 델리 알리가 장기 부상으로 빠졌을 때, 전문가와 팬들은 토트넘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치부했지만 그때 손흥민이 나타났다. 손흥민은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올해의 선수상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고 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와 각종 컵 대회를 포함해 16골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지난달 아시안컵 등 국가대표 차출로 빠진 적이 많았지만 존재감을 과시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다. BBC는 “손흥민에 앞서 유럽 무대에서 성공한 아시아 선수들이 여럿 있지만 누구도 손흥민의 레벨은 아니었다”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맨 박지성이 매우 큰 인기를 누렸지만 손흥민처럼 ‘올해의 선수상’ 후보에 근접했던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화려하게 치장하는 선수가 아니다.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 팀 플레이어다. 최근 도

르트문트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뒤에도 본인 대신 동료 안 베르통인을 칭찬하고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며 이타적인 성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골을 넣은 13경기에서 토트넘은 패하지 않았다. 최근 12경기에서는 11골을 몰아치고 있다. 경기 대부분을 케인의 뒤에서 왼쪽 윙어로 뛰며 스트라이커로 댄 적이 거의 없다. 심지어 데포팀 차출로 빠지는 경기도 많았다”며 출전시간 대비 많은 골에 주목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게 된 사실도 빠뜨리지 않았다.

BBC는 또 “많은 팬들이 손흥민의 미소를 사랑한다. 티에리 앙리 해설위원이 ‘너는 왜 항상 웃고 있는냐’고 물어볼 정도로 항상 미소를 보인다”며 “항상 웃고 있는 손흥민은 동료와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축구의 피가 흐르고 있다”며 아버지 손웅정씨도 조명했다. BBC는 “축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역시 선수였다”며 “그는 매일 6시간에 걸쳐 손흥민이 기술을 익히도록 도왔다. 독일 함부르크 시절, 독일로 건너가 연습장 건너편 호텔에 머물면서 손흥민을 도왔다”고 소개했다.

스켈레톤 윤성빈, 월드컵 시즌 세 번째 동메달

한국 스켈레톤의 간판스타 윤성빈(25·강원도청)이 2018~2019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 IBSF 월드컵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윤성빈은 지난 16일 밤(한국시간) 미국 레이크 플레이스에서 열린 IBSF 월드컵 7차에서 시즌 세 번째 동메달을 획득했다.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 1주년이 되는 날에 또 하나의 메달을 추가했다. 이번 시즌 6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1위는 1분47초19를 기록한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트레티아코프가 차지했고 1분47초33을 기록한 리투비아의 마르티나스 두쿠르스가 2위에 올랐다.

뉴스스

“광주세계수영대회 北 참가 긍정적...준비 순조”

조영택 광주세계수영대회조직위 사무총장

“경기장 5월 완공·6월부터 테스트 운영”
 “광주 역사·문화, 개·폐막식에 담을 것”
 “광주발전연구원, 생산유발 1조4000억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것을 염두해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영택 광주세계수영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17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남북관계 등이 개선되고 있고 북측도 긍정적 신호를 보내 주고 있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1400일 남았다. 준비는 질되고 있다. “지방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여서 준비할 사항이 많다. 인천·김포·무안공항 등에서 선수촌 또는 경기장까지 막힘없이 왕래할 수 있는 수송 서비스를 비롯해 체류기간 광주의 편안함과 맛을 느끼도록 숙박, 식음료 서비스도 신경 쓰고 있다.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첨단 시설의 경기장과 선수촌 분야도 세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를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교통 안내서비스를 비롯해 입장권 판매, 온라인 기념품 스토어, 대회기간 월드컵주제스티벌,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세계청년축제를 열어 선수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행사도 제공할 계획이다. 5월까지 대회 경기장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며 6월에 동아시아대회 등 전국 단위 규모의 테스트 이벤트를 거쳐 현장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선수촌과 경기장 등 대회시설 규모는. “선수촌은 광주 광산구의 송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25개동에 1660세대가 들어선다. 선수들과 미디어진, 수영동호인들이 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 대회를 치르는 기간 사용하며 6000여명이 동시에 입실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86.5%로 오는 3월 완공 예정이다. 이와함께 선수촌에는 식당, 편의시설, 회의실, 운영실, 은행, 편의점, 세탁소, 카페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선수촌 개촌은 7월5일이다” “경기장은 남부대 국제수영장을 주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람석을 320석에서 1만1000석으로 늘리고 있으며 각종 운영시설도 증축하고 있다. 다이빙, 아티스틱수영 경기장 펼쳐질 열주체육관은 임시수조 2개를 설치하고 운영실과 관람석을 개보수중이다. 남부대 종합운동장에는 수구 경기장 펼쳐지며 임시수조 2개가 설치된다. 무등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선대 축구장은 27m의 하이다이빙 타워와 임시수조 1개가 설치되며 무등산과 광주 도심에 카메라 앵글에 담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거리 수영인 오픈워터수영은 여수엑스포해상공원은 2000석의 관람석과 운영실을 설치해 직접 바다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준비 중이다”

▶북한 선수단 참가 가능성은. “대회의 성공 개최 여부는 북한 선수단의 참가에 달려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의 불꽃을 뿔뿔히 퍼뜨린다면 광주세계수영대회는 평화의 불꽃이 넘실대는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남북 간 대화의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북한 참가와 단일팀 구성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1일 KTX 서울역에서 열린 ‘수리&달이’ 마스크트 제작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식 제안했고 일부 종목은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수영연맹(FINA)도 북한선수단 참가할 경우 비용과, 중계권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직위는 북측이 반드시 참가할 것으로 믿고 준비하고 있다”

▶예산이 증액됐다. 규모는 어느 정도. “지난해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여유 있는 지원 수준은 아니지만 대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됐다. 추가 확보된 기금 230억원은 7·8월 폭염을 대비해 냉방시설 설치와 안전분야, 관람객들의 즐거움을 위한 경기 연출, 각종 편의시설, 공식 문화행사 등에 집행된다”

▶개·폐막식 준비는. “첫 번째 개막식은 7월12일 ‘빛의 분수’라는 주제로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리며 폐막식은 같은달 28일 ‘아름다운 순환’이라는 주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펼쳐진다. 마스터즈 대회 개막식은 전체적인 수영동호인들의 축제분위로 남부대, 폐막식은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다.광주를 찾은 선수와 수많은 관광객들이 광주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세계수영대회가 광주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대회는 광주의 도시 브랜드를 문화·스포츠, 민주·인권·평화의 이미지로 지구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지난 2017항가리 부다페스트 대회기간 48만명이 다녀갔으며 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미디어를 통해 10억명 이상이 경기를 시청했다. 광주발전연구원이 추산한 수영대회 경제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광주 1조4000억원, 전국 2조4000억원이며 부가가치유발효과 광주 6600억원, 전국 1조원, 고용창출효과 광주 1만8000명, 전국 2만4000명으로 평가했다”

▶광주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는. “대회 성공 개최 여부는 시민들의 관심이다. 대회의 주인이자 자원봉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광주를 찾는 선수단과 외국인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실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조직위도 이번 대회가 광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는 대회가 되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입장권 구매, 시민 서포터즈 참가, 자원봉사 등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신봉우 기자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품, 화연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